

“올해 성장률 최대 3.6%…수출·설비투자 호조”

이형일 재정부 장관, 잠재성장률 반등 예측

전망치 내년부터 3회 발표…기초체력 탄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남은 기간 새로운 외부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3%대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대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는 “3.4%, 3.5%, 3.6%”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 쿼터리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제시했다. 이후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구(IMF) 등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높여 잡고 있다.

이 부총리는 “3분기에도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8%, 2분기 0.6%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 정도 상태에서 3분기까지 괜찮으면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이 불과 석 달 새 최소 0.4%포인트(p) 상향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제시 횟수를 기존 연 말과 6월 말~7월 초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가 단순히 성장률만 개선되는 게 아니고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도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IMF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이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도) 설비투자

가 굉장히 좋고,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 거 같다”며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남권과 충청권은 산업통상부가 총괄해 꾸리고, 영남권은 재경부가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퇴임 한 달 남은 조합장이 수협회장 선출”

주철현 “신임 조합장은 참여 못해…선거일 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여수시 갑)은 19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조합장들이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신임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조정을 촉구했다.

현행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91개 회원조합의 조합장들이 각각 1표씩 행사하는 간선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조합원 수가 9000명이 넘는 조합과 10여명에 불과한 조합이 동일하게 1표를 행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직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수협법 개정과 중앙회 정관 정비, 중앙선관위의 협의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내년 중앙회장 선거부터 시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협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2월 15일을 차기 중앙회장 선거일로 정해 선거관리 위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조합장들의 임기는 내년 3월 20일 종료되고, 3월 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신임 조합장들은 3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불과 한 달여 뒤 임기가 끝나는 현직 조합장들이 앞으로 4년간 수협중앙회를 이끌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물러나는 반면, 정작 신임 조합장들은 자신들과 함께 수협을 이끌어 갈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규정에 따르면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 14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회장이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해수부 역시 올해 12월 25일 선거공고 이전까지 선거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조합장들이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정작 신임 조합장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선제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선거일이라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NH농협, 현금관리 자동화기기 시범 도입

입·출고부터 보관까지 관리…업무 오류·금융사고 예방

NH농협은행이 영업점 10곳에 현금 출납과 보관 업무를 관리하는 ‘NH시재관리기’를 시범 도입했다. 수작업 중심의 현금관리 방식을 개선해 업무상 오류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행은 디지털 기반 현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NH시재관리기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기는 창구 직원이 취급하는 현금의 입·출고와 보관 등 시재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조치는 현금관리 절차를 강화하려는 은행권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해 영업점 직원의 시재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 소재 영업점

직원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시재금 256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농협은행은 현금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 종료 시 직원이 보유한 5만원권을 출납 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등 업무 개선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현금 출납과 보관 업무의 자동화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창구 직원의 현금 입·출고와 시재잔산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시재관리기’를 전국 영업점에 확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범 도입을 통해 현금관리 과정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는 19일 광산구 안창동 하남농협 관내 고령 취약계층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농협광주본부, 고령 취약농가 밀착 지원

하남농협 지역 내 100세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농협광주본부가 100세 홀몸 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농협광주본부는 19일 광산구 안창동 하남농협 지역 내 고령 취약계층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촌 고령화와 홀몸 어르신 증가로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행복콜센터에 접수된 돌봄 대상자의 고충을 바탕으로 NH농촌현장봉사단이 현장 실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봉사에는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과 박상훈 하남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하남농협 임직원, 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습기와 노후화로 훼손된 벽지와 장판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등 대청소를 진행했다.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은 “농업인 행복콜센터와 NH농촌현장봉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취약 농업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관 여성조직 등과 협력해 취약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은행, 첫 거래 최고 4.06% 금리 우대

총 3000억원 한도…최대 0.96%p 추가 금리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올해 말까지 디지털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첫 거래 우대! 디지털예금 금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만기일시지급식 디지털예금으로, 가입일 직전 1개월 동안 광주은행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 가입 기간은 12개월, 13개월, 14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계좌당 1000만원 이상이다.

이벤트 기간 중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개월 연 0.75%p, 13개월 연 0.80%p, 14개월 연 0.86%p의 우



대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기본금리 연 3.10%와 마케팅 동의에 따른 우대금리 연 0.10%p를 더하면 14개월 가입 기준

최고 연 4.0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2개월 가입 고객 중 예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 0.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4.0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판매 한도는 3000억원이다. 상품 가입은 광주와뱅크 앱과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의 금융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맞벌이해도 가사·돌봄은 아내가 더…남성과 2.6배 격차

국가데이터처 ‘청년의 시간사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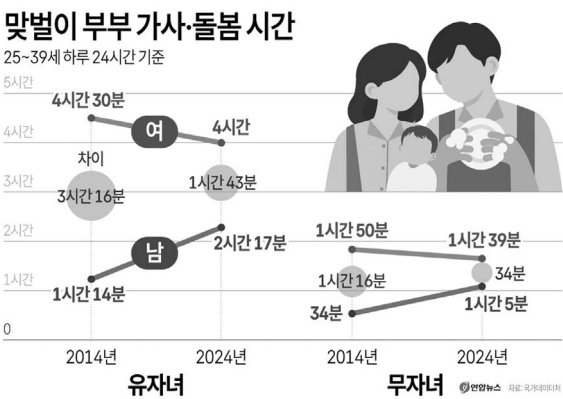
여성 가사·돌봄 5시간45분…남녀 성별 격차 여전

유자녀 청년, 미혼보다 가사·돌봄 3시간23분 길어

지난 10년간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가 늘면서 성별 격차가 줄었지만,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의 부담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로 본 청년의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

간사용 변화’에 따르면 2024년 25~39세 청년의 하루 평균 가사·돌봄 시간은 기혼·유자녀 집단이 4시간15분으로 가장 길었다. 기혼·무자녀는 1시간35분, 미혼은 52분이었다. 기혼·유자녀 청년은 미혼보다 가사·돌봄에 3시간23분을 더 사용한



셈이다.

반면 일하는 시간과 여가시간은 자녀가 있는 청년이 더 적었다. 기혼·유자녀 청년

사용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자녀가 있는 집단에 서 두드러졌다. 2024년 기혼·유자녀 남성

은 하루 평균 일에 5시간29분을 썼지만 여성은 2시간14분에 그쳤다. 반대로 가사·돌봄 시간은 여성이 5시간45분으로 남성의 2시간14분보다 3시간31분 많았다. 여가시간은 남성 3시간14분, 여성 3시간11분으로 비슷했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가사·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 기혼·유자녀 맞벌이 남성의 가사·돌봄 시간은 하루 2시간17분, 여성은 4시간이었다. 여성의 가사·돌봄 시간이 1시간43분 더 길었다. 외벌이 가정에서는 남성 2시간11분, 여성 7시간28분으로 격차가 5시간17분에 달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늘고 여성의 시간은 줄면서 격차가 축소됐다. 외벌이 기혼·유자녀 남성의 가사·돌봄 시간은 2014년 1시간17분에서

2024년 2시간11분으로 54분 증가했다. 여성은 7시간42분에서 7시간28분으로 14분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남녀 격차는 6시간25분에서 5시간17분으로 줄었다.

맞벌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남성의 가사·돌봄 시간은 2014년 1시간14분에서 2024년 2시간17분으로 1시간3분 늘었다. 여성은 4시간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감소했다. 남녀 격차는 3시간16분에서 1시간43분으로 줄어 절반 수준이 됐다.

청년 전체의 시간 사용도 달라졌다. 2024년 청년의 하루 평균 필수시간은 11시간25분, 일·학습·가사·돌봄 등 의무시간은 8시간22분, 여가시간은 4시간13분이었다. 2014년과 비교하면 필수시간은 16분, 여가시간은 21분 늘었고 의무시간은 37분 줄었다. 김은지 기자 eunzy@